

PIANO
MAO FUJITA

피아노 후지타 마오

KBS

S.O.

CONDUCTOR
MYUNG-WHUN CHUNG

지휘 정명훈

817th

KBS교향악단
제817회 정기연주회

2025.8.29. FRI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 교향악단

“수신료의 기적, 감동으로 전합니다”

KBSS.O. 817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모차르트
W. A. Mozart

피아노 협주곡 제25번 C장조, K.503
Piano Concerto No.25 in C Major, K.503

⌚ 30'

I. Allegro maestoso
장엄하게 빠르게 (15')

II. Andante
느리게 (7')

II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8')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베를리오즈
H. Berlioz

환상 교향곡, 작품 14, H.48
Symphonie Fantastique, Op.14, H.48

⌚ 49'

I. Rêveries – Passions
환상 – 열정 (13')

II. Un bal
무도회 (6')

III. Scène aux champs
전원 풍경 (15')

IV. Marche au supplice
단두대로의 행진 (5')

V. Songe d'une nuit de sabbat
마녀들의 밤, 꿈 (10')

⌚ 총 소요시간 : 약 105분 (인터미션 포함)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MYUNG-WHUN CHUNG

지휘 정명훈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헤펠레 수석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및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만 4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 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PIANO MAO FUJITA

피아노 후지타 마오

Mao Fujita appears courtesy of Sony Classical, a label of Sony Music Entertainment.

후지타 마오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인
소니 클래식 소속 아티스트로서 출연합니다.

타고난 음악적 감수성과 자연스러운 예술성을 지닌 25세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는 모차르트뿐 아니라 낭만주의 레퍼토리에도 능숙하게 해석하는 드문 재능으로 이미 많은 저명한 음악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뉴욕 타임스는 2023년 1월 카네기 홀에서 열린 후지타 마오의 미국 데뷔 무대에 대해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아름답고 완벽한 가벼우면서 섬세한 물결이 금사(金絲)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왔다’고 적었다.

후지타 마오는 도쿄 출생으로, 도쿄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7년 스위스의 권위 있는 클라라 하스킬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상을 비롯해 청중상, ‘모던 타임즈’ 상, ‘쿠 드 괴르’ 상을 수상하면서 처음으로 국제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후지타 마오는 2019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독보적인 음악성으로 정상급 음악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특별한 주목을 받으며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24/25 시즌에 후지타는 뮌헨, 베를린, 취리히, 룩셈부르크, 에센, 드레스덴, 린츠, 프라하, 루체른, 시카고, 서울, 타이베이, 싱가포르, 일본 등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의 주요 축제와 콘서트홀에서 인상적인 독주 데뷔 무대를 이어갈 예정이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워싱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처음으로 협연 무대에 오르고, 체코 필하모닉과는 첫 BBC 프롬스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의 다른 주요 무대로는 카네기 홀 아이작 스톤 오디토리움을 재방문해 개최하는 독주 리사이틀 무대, 그리고 페트르 포펠카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와 함께하는 테아터 안 데어 빈 재개관 축하 무대가 있다.

후지타 마오는 세몬 비치코프, 리카르도 샤이,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마렉 야노프스키, 안드리스 넬슨스, 샤를 뒤투와, 라이언 뱅크로프트, 도밍고 힌도안, 만프레드 호네크, 아콕 흐루샤, 바실리 페트렌코, 라하브 샤니, 달리아 스타세브스카, 야마다 카즈키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했다. 로열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LA 필하모닉,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라스칼라 필하모닉, 이탈리아 국립 방송 교향악단, 이스라엘 필하모닉,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로열 필하모닉, 요미우리 일본 교향악단, 도쿄도 교향악단 등과 호흡을 맞췄다. 후지타 마오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피아노 페스티벌과 콘서트홀에서 정기적으로 독주회와 실내악 리사이틀을 가지며 르노 카뮈송, 앙투안 타메스티, 키안 솔타니, 즐라토미르 핑, 마크 부쉬코프, 오조네 마코토 등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후지타 마오는 소니클래시컬 인터내셔널과 독점 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다. 소니클래시컬에서 기대감 속에 2022년 10월 발매된 후지타 마오의 데뷔 앨범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집의 스튜디오 녹음으로, 투명한 음향과 생생하고 섬세한 해석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후지타 마오는 베르비에 페스티벌, 위그모어 홀, 그리고 일본의 주요 콘서트 홀에서 모차르트 소나타 전곡을 연주했다. 소니클래시컬에서 2024년 가을 발매된 <72개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앨범은 쇼팽, 스크랴빈, 야시로의 24개 전주곡이 담긴 광범위하고도 야심찬 모음집이다.

후지타 마오는 3세에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 2010년 대만 월드클래식을 통해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수상한 이후 2013년 빈 로사리오 마르시아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15년 주하이 모차르트 국제 청소년 콩쿠르, 2016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등 다수의 국내외 콩쿠르에서 수상했다.

모차르트
W. A. Mozart

피아노 협주곡 제25번 C장조, K.503
Piano Concerto No.25 in C Major, K.503

작곡연도 1786년

초연 1787년 초, 오스트리아 빈

편성 독주 피아노, 플루트 1, 오보에 2, 바순 2,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현 5부

연주 시간 약 30분

그림1)

1787년 오스트리아 빈, 피아노 협주곡 제25번을 초연하는
모차르트의 모습을 시로 상상 재구성한 이미지
(정확한 초연일은 미상)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5번>은 1786년 12월 일명 ‘프라하 교향곡’(교향곡 제38번)과 함께 완성된 작품이다. 모차르트는 모두 27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남겼는데, 이 곡들은 창작 시기와 배경에 따라 조금씩 서로 다른 음악적 표정을 띠고 있지만, 대체로 맑은 음색을 바탕으로 두고 정갈하게 다듬어진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고전 기악곡 형식이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5번 협주곡은 마치 후배 베토벤을 연상케 하는 폭발적이고 남성적인 정열과 고대 그리스 신전의 대리석 열주 기둥처럼 장대하고 웅장한 수직적 표현력이 돋보이는 등 모차르트 음악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때문인지 한동안은 다른 피아노 협주곡에 비해 공연장에서의 연주 빈도나 대중적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 작품이 지닌 고전주의 음악 특유의 단정하면서도 치밀한 형식미와 정밀하게 다듬어진 세공미, 악상의 구조적 아름다움 등이 널리 인정받아 지금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위대한 걸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곡의 가장 큰 특징은 ‘교향악적 협주곡’이라는 점이다. 즉, 피아노 솔로 파트의 화려하고 현란한 기교가 강조되는 대신, 오케스트라와 독주 악기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화를 이루며 전개된다. 그 덕분에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진지하고 강렬하며, 남성적인 색채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I. 장엄하게 빠르게 Allegro maestoso

1악장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C장조의 화려하고 힘찬 팡파르로 시작된다. 곧이어 모차르트 특유의 기민한 조성변화가 다채로운 표정을 자아내는 가운데, c단조로 조율된 아리아풍의 선율이 깜짝 등장해 청중의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후일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오페라 <스페이드의 여왕> 제2막에서 이 선율을 인용하여 그가 가장 존경했던 모차르트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베토벤의 ‘황제 협주곡’을 연상케 하는 당당한 제1 주제와 산뜻한 분위기의 G장조 제2 주제가 서로 조화롭게 대화를 주고받듯 전개되다 카덴차를 거치면서 힘차게 마무리된다. 모차르트 당시 빈 황실의 장엄함을 연상케 하는 담대한 스케일의 악장이다.

II. 느리게 Andante

느린 2악장은 변형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다. 2개의 주제 모두 F장조인데, 목관악기가 한결 느긋하면서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제1 주제와 오페라 부파 스타일의 코믹하면서도 재기발랄한 제2 주제가 미묘한 대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느리지만 생기발랄한 느낌의 매혹적인 음악을 들려준다.

III. 조금 빠르게 Allegretto

3악장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 속 가보트 주제를 이용한 론도 소나타 형식이다. 조성은 C장조지만 1악장처럼 장대한 남성미를 강조하기보다는 화려한 장식미가 더 돋보인다. 론도가 주는 쾌활하면서도 축제적인 성격, 소나타 형식 속의 다채로운 주제와 변주, 예측불허의 짧고 기발한 음악적 에피소드 등이 길지 않은 음악 속에 모두 다 응축되어 있어 모차르트의 천부적 자질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악장이다.

베를리오즈 H. Berlioz	환상 교향곡, 작품 14, H.48 Symphonie Fantastique, Op.14, H.48
작곡연도	1830년
초연	1830년 12월 5일, 프랑스 파리
편성	플루트 2(제2플루트는 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제2오보에는 잉글리시 호른을 겸함), 클라리넷 2(제2클라리넷은 Eb클라리넷을 겸함), 바순 4, 호른 4, 트럼펫 2, 코넷 2, 트롬본 2, 베이스트롬본, 튜바 2, 팀파니 2, 하프 2, 베이스드럼,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 스네어 드럼, 현 5부 오프스테이지 : 오보에, 교회종
연주 시간	약 49분

이 놀랍고도 기괴하며 천재적인 교향곡의 출발점은 1827년이였다. 당시 영국의 셰익스피어 극단이 프랑스 파리로 순회 공연을 왔다. 이 극단에는 해리엇 스미슨이라는 이름의 재능 있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작곡가 베를리오즈는 <햄릿> 속 오�필리어로 출연한 그녀의 자태에 그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베를리오즈는 수많은 러브 레터와 끝없는 구애를 그녀에게 보냈지만, 스미슨은 당시만 해도 무명의 작곡가에 불과했던 베를리오즈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랑의 단꿈과 좌절의 열패감이 뒤섞인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베를리오즈는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환상교향곡, 5부로 된 어느 예술가의 삶에 대한 에피소드’(Symphonie fantastique : Épisode de la vie d'un Artiste en cinq parties)라는 제목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환상교향곡>은 교향곡 형태로는 최초로 시도된 작가 개인의 내밀한 환상 체험기다. 이는 빈 고전파, 특히 베토벤이 이룩했던 장대하고 객관적인 서사구조의 엄격한 교향곡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1악장의 ‘고뇌’에서 출발해, 악장을 거듭해 나가며 치열하게 투쟁하고 발전해 가던 음악이 종국의 4악장에 이르러 ‘환희’와 ‘승리’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베토벤식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세계’에 기초하고 있다. 즉, 베토벤의 승리와 환희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승리이지, 그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나 주관적인 쾌락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베를리오즈는 아예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이 곡은 ‘환상’을 표현한 것이며, 그 소재는 ‘어느 예술가의 삶’, 즉 개인의 체험에서 가져온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음악이 그려내는 에피소드와 이야기들 또한 현실 세계의 것이 아니라, 몽환적인 꿈속의 망상이나 아니면 악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예술가의 찌나적이고 도취적인 감흥 같은 것이다. 따라서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각 악기들은 이전 시대 빈 고전파 작곡가들의 명징하고 구체적인 악기 운용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 규정하기 힘든 모호한 음색,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소음이나 비명에 가까운 절규, 식은땀이 나는 공포스러운 악몽과 갑작스런 깨어남 등을 지극히 개성적인 사운드로 표현하고 있다. 스토리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정 악상(idée fixe)이라는 음악적 장치도 고안하여 도입하였다.

베를리오즈는 이 곡을 통해 소재와 주제, 내용 전개 방식은 물론이고, 악기의 사운드와 운용법 등 관현악의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이고, 몽환적이지만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이 교향악의 특별한 매력은 초연된 지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신선함을 전혀 잃지 않은 채, 지금도 동시대의 음악 팬들을 컬트적으로 열광시키고 있다.

I. 꿈, 열정 Reveries, Passions

한 젊은 음악가가 자신이 꿈꿔왔던 완벽한 여인을 만나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다. 그녀를 상징하는 매혹적인 음악이 고정 악상으로 작품 내내 들려온다. 그녀에 대한 찬양과 찬미, 사랑의 괴로움, 애타는 심정, 낙관과 절망의 엇갈림 등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뒤엉키며 표출되다 다시금 사라진다. 플루트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그녀의 테마’ 즉 고정 악상이 물결치듯 흘러나오다 조용히 사라지는 가운데 1악장이 마무리된다.

II. 무도회 Un bal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왈츠 무도회에 참석한다. 그는 거기서도 그녀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화려한 왈츠 음악 속에 불쑥불쑥 그녀의 테마가 틈입하듯 등장해 젊은이의 괴로운 마음을 상기시켜 준다.

III. 전원 풍경 Scène aux champs

젊은이가 저녁 들판에 나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양치기들의 노래를 감상한다. 잉글리쉬 호른과 오보에가 세상 평화롭게 연주하는 목가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는 그녀와의 결혼과 그들이 꾸려나갈 행복한 미래 등을 제멋대로 상상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녀가 진짜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그녀가 날 버리면 어찌지?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제시되던 그의 잔잔했던 희망은 이제 암울한 예감들과 혼란스에 뒤섞인다. 양치기 목동들의 노래가 다시금 무심히 들려오는 가운데 악장이 끝난다.

IV. 단두대로의 행진 Marche au Supplice

젊은이는 급기야 꿈속에서 살인을 저지른다. 그녀에게 버림받고 실연당해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고는 단두대로 끌려간 것이다. 메마른 팀파니 소리와 호른의 어두운 모티브로 악장은 시작된다. 해골들의 행진곡 같은 그로테스크한 음악이 뒤뚱거리는 기묘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클라리넷이 사랑하는 그녀의 고정 악상을 연주하며 사형 직전의 젊은이가 꿈꾸는 짧은 사랑의 추억을 상기시킨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리가 잘려 나가 땅에 뒹굴고, 빗발치는 팀파니와 날카로운 스네어 드럼 등이 이 장면을 묘사하는 가운데 4악장이 마무리된다.

V. 마녀들의 밤, 꿈 Songe d'une nuit de Sabbat

5악장은 머리가 잘린 젊은이의 장례식이다.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녀, 괴물 등이 뒤엉켜 등장한다. 베를리오즈는 이 악장을 쓰면서 ‘발푸르기스의 밤’을 참고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등장하는 마녀들의 축제 말이다. 마녀 무리에는 이미 일그러진 표정으로 변해버린 ‘그녀’도 등장하는데, 이때의 고정 악상은 1악장의 우아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녀의 현재 모습처럼 기괴한 음조로 변해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고, 중세 그레고리안 성가의 ‘진노의 날’(Dies Irae) 선율이 반복된다. 마녀들의 춤, ‘진노의 날’ 테마, 그녀의 일그러진 고정 악상 등이 점차 고조되는 음악과 함께 혼돈의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가운데 작품은 마침표를 찍는다.

베를리오즈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기어이 스미슨과의 결혼에 성공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작곡가의 기대와 달리 행복하지 못했고, 이들은 결국 갈라서게 된다. 현실 속에서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지만, 베를리오즈가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작곡한 <환상교향곡>만은 음악사에서 찬란한 족적을 남겼다. 개성 만점의 사운드, 기발하거나 악취미적으로까지 느껴지는 대담한 악기 운용, 고정 악상의 도입, 개인의 가장 내밀한 체험까지도 작품화하는 급진적인 발상 등은 후대의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프랑스의 근대 낭만주의 관현악이 꽃 피우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음악으로 평가받는다.

글 | 황지원 (음악 칼럼니스트)

클래식 레볼루션 2025



공연정보확인

CLASSIC REVOLUTION SPECTRUM: BACH to SHOSTAKOVICH 2025

Artistic Director
Leonidas Kavakos

8.28

THU 7:30PM

서울시향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6번>

8.30

SAT 5:00PM

체임버 뮤직 콘서트 II.

9.1

MON 7:30PM

체임버 뮤직 콘서트 IV.

8.29

FRI 7:30PM

바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전곡

8.31

SUN 2:00PM

경기필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4번>

9.2

TUE 7:30PM

페스티벌 체임버의 <바흐 관현악 모음곡 제2번>

8.30

SAT 11:30AM

체임버 뮤직 콘서트 I.

8.31

SUN 7:00PM

체임버 뮤직콘서트 III.

9.3

WED 7:30PM

KBS교향악단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5번>

2025. 8.28 THU — 9.3 WED 롯데콘서트홀

주최 | 롯데문화재단 예매 및 문의 | 롯데콘서트홀 1544.7744 www.lotteconcerthall.com NOLinterpark YES24 티켓링크

www.classicrevolution.net

CONDUCTOR
GEMMA NEW

지휘 젠마 뉴

버스타인 / 캔디드 서곡
L. Bernstein / Candide Overture
존 애덤스 / 색소폰 협주곡 *한국 초연
J. Adams / Saxophone Concerto *Korean premiere
코플랜드 / 교향곡 제3번
A. Copland / Symphony No.3

KBS SO. 818th

SAXOPHONE
JESS GILLAM

색소폰 제스 길럼

2025
9.25.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R 100,000 S 80,000 A 50,000 B 30,000 C 10,000 예매 NOLticket 1544-1555 예술의전당 1668-1352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쿠크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9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Torsten Janicke (前 뮌헨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악장)
플루트	Demarre McGill ^{수석}
클라리넷	조성호 ^{수석}
호른	Ionut Podgoreanu ^{수석}
트롬본	Alexandre Faure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인턴십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윌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윤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셀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 02-6099-7400
- ☎ 02-6099-7416
- Ⓚ www.kbssymphony.org
- fb facebook.com/kbssymphony
- yt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ig [kbssymphonyorchestra](https://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 yt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